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영광 돌리고 싶어”

윤공희 대주교 백수연

“우리가 5·18을 기념하는 것은 5·18 정신이 참되게 부활해 이 세상에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생명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간성이 거부당하는 희생이 크기 때문입니다.”(201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미사 중)

윤공희 대주교는 시대의 큰 어른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다. 한국 가톨릭 생존 주교 가운데 최고령인 그는 일제 강점기, 해방과 분단, 6·25전쟁, 유신독재, 5·18항쟁 등 굴곡의 현대사를 건너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했다.

윤공희 대주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백수연(白壽宴)’이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라마다프라자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김대중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이 주관한 백수연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윤 대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단 및 천주교,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함세웅 재단 원로자문위원, 김희중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육현진 광주대교구장, 임재정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원혜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춘성 조선대 차기 총장, 김중배 전 국회의원 등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주교 입장으로 시작된 백수연은 1부 축하무대, 2부 공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병열 재단 자문위원 사회로 펼쳐진 축하공연

5·18 민주화운동 현대사 산증인

김대중재단 주최, 100주년 축하 김희중 전 대주교·함세웅 신부 등 천주교·학계 인사 200여 명 참석

은 문화신포니에타 단원들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가수 은혜가 ‘꽃받치 끼고’ 등을 불러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진 공식행사는 최경주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80년 5월항쟁 당시 부친 조사천의 영정 사진을 든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조천호 씨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목걸이를 윤 대주교에게 걸어주어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 10여 분에 걸쳐 ‘윤 대주교가 걸어온 길’ 영상을 시청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습니다’라는 기도로 시작된 영상은 한국 현대사의 큰 어른 윤 대주교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1924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윤 대주교는 부모 모두 독실한 신자였다. 1949년 함경남도 덕원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북한의 가톨릭 탄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다. 이후 1950년 현재 가톨릭대학인 서울 성신대학을 졸업하고 사제서품을 받는다. 교황청으로 유학을 떠나 1957년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1960년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지난 1973년 10월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다. 27년간 교구장을 맡아 지난 2000년 은퇴할 때까지 가장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기억은 80년 광주 5·18이다.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주관으로 윤공희 대주교 백수연을 축하하는 행사가 7일 라마다프라자호텔 대연회장서 열렸다. 앞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 윤 대주교(가운데), 김희중 전 천주교광주대교구장(왼쪽), 권노갑 재단 이사장.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당시 윤 대주교는 광주에 있는 미국인 신부와 광주 미국문화원장을 통해 미국 대사에 ‘5·18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한 이듬해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상의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만나 5·18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청했다.

권노갑 재단 이사장은 축하 메시지에서 “윤 대

주교님은 한국인의 영혼을 맡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사제로서 역사와 국민과 함께 하셨다”며 “민주와 인권, 생명과 평화, 정의의 영구히 가져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주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늘님 은혜이고 신자들의 기도 덕이다. 오늘

의 이 자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후광을 받아서 있지 않나 싶다. 그분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말로 답례를 대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차별화 전시로 경제성·대중화 성과

62일간 대장정 막 내려...방문객 53만5000여명 다녀가 관람평 4.35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62일간 열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이 7일 오후 6시 각계 인사, 진행요원, 도슨트,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엔날레전시관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폐막식은 ‘62일간의 여정’ 영상 상영에 이어 나건 총감독에 대한 감사패 수여, 행사를 도운 도슨트와 운영요원 등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어울림마당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7일부터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미술관, 동구미로센터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린 디자인 비엔날레는 본전시를 비롯해 특별전, 연계기념전,

국제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꾸며졌다. 올해 행사에는 50여개국 195개 기업, 디자이너 855명이 참여해 271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비엔날레전시관 등 11개 행사장에는 총 53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N포털을 통한 예매 방문객이 남긴 관람평은 4.35(별 다섯 개 기준)로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체험거리, 즐길거리도 관람객들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10일 대통령 부인 방문을 비롯해 명예홍보대사 팽수 초청 행사, 블루보틀 커피트럭 입점 등은 관람객들이 기뻐했다.

무엇보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가운데 2166만 불(292억원 상당) 상당의 수출상담 및 855만불

(115억원 상당) 규모의 수출 계약을 비롯해 지역상품 판로 지원, 전시 작품 상용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올해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전시 차별화와 더불어 시민, 관람객들 성원에 힘입어 대중화, 경제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며 “2025년, 제11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4급→3급 상향

행안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확대

앞으로 인구 10만명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하고, 2024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를 상향한다.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사·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며, 사·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m³/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분산기판 (TMS-600+)
- 평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2023년 11월 8일

- 1997 태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혁신분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법제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공민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복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재권지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삼양에코너지 주식회사(이하 “갑”)와 씨엘파워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3년 11월 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갑” 삼양에코너지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1번길 6, 3층 (후평동)
사내이사 김윤호
“을” 씨엘파워 주식회사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예당길 41-7
대표이사 정종민

판결공시

- 제1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136 정족력법원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원(간장등상) 등
(광주고등법원 2023노16, 대법원 2023도10744)
- 피고인 : 김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원(간장등상) 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위반(향)의 죄는 범죄의 중명이 없음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3년 11월 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허정훈, 조혜정, 박아름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칼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양 이일승(880310-2XXXXXX)
- 최종주소 : 순천시 장평5길 5-10(장평동)
- 등락기(주소)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봉천리 200번지 피상속인 양 이일승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노465호로 신청하여 2023년 11월 29일 정한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債權과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특별선고표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1월 8일
상속인 : 1. 양혜정(600715-2XXXXXX) 순천시 장평5길 5-10(장평동)
2. 양은옥(640728-2XXXXXX) 서울 동대문구 탑골로56길 105, 107동 1703호 (답십리동, 답십리파크재)

3. 양정희(670025-2XXXXXX) 순천시 와림길 26-7(주곡동)
4. 양은진(750310-2XXXXXX) 용인시 수지구 성복로 126, 303동 1602호 (성복동,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신고기간 : 2023. 11. 8. ~ 2024. 1. 18.
• 재권신고주소 : 상속인 3, 양정희의 주소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